

금융권 속속 '금리 인상' ...영끌족 속 타들어간다

5대 은행 가계대출 2.4조 또 늘어...국민·농협·신한 등 인상기로 미 국채금리 상승에 가계대출 억제 겹쳐 지표금리보다 더 뛰어 당국, 스트레스 DSR 도입 압박...전세대출 등 DSR 포함 주목

영끌족이 타들어가고 있다.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틀어막고 특례보증자리를 축소하고도 여전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자, 결국 은행들이 속속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고 있다.

KB국민·우리·NH농협에 이어 신한은행도 이번 주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은행 자금 조달 경쟁에 이처럼 가계대출 억제 압박까지 겹쳤다. 결국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만약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으면 금융 당국이 가산금리를 적용한 '스

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더해 'DSR 예외 축소'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더 늘었다.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크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517조8588억원에서 520조1093억원으로 2조2504억원 불었고, 지난달 1조762억원 줄었던 신용대출도 이달 5307억원 반등했다.

월말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 5대 은행의 신용대

출까지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시기 시중은행들이 일부러 추가 금리를 더 올리는 이례적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코픽스·신안액코픽스(6개월 주기) 기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가 0.05%포인트(p) 오르고,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가운데 지표 금리가 1년물 이하인 상품의 가산금리도 0.05%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보다 앞서 이미 KB국민은행은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렸고, 우리은행도 13일부터 같은 상품군의 금리를 최대 0.3%p 높였다.

NH농협은행은 17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3%p 축소해 사실상 대

출금리를 인상했다.

개별 은행의 잇따른 인위적 금리 인상에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폭은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을 웃돌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360~6.760% 수준이다.

약 한 달 전 9월 22일(연 3.900~6.490%)과 비교해 하단이 0.460%포인트(p) 뛰면서 4%대로 올라섰다. 이 오름폭(+0.460%p)은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0.268%p·4.471~4.739%)보다 0.192%p나 높다.

가뜩이나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오르는데, 가계대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가산금리 등까지 조절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570~7.173%) 역시 상당과

하단이 각 0.300%p, 0.074%p 높아졌다.

변동금리 하단 상승 폭(+0.300%p) 역시 주요 지표금리 코픽스(COPIX+0.160%p)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 당국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 연내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능하게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 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만약 가계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결국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 예외' 대출들이 추가로 DSR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 29일 대불산단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차량기증식에 참여한 고병일(왼쪽) 광주은행장 등이 기념 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대불산단 세탁물 운송차 기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9일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와 근로자 공동세탁소 개소를 기념해 세탁물 운송 차량 1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을 연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와 근로자 공동세탁소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지역상생 실천방안으로 근로자 공동세탁소에 3000만원 상당의 세탁물 운송차량

기부를 결정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복합문화센터 및 근로자 작업복세탁소 신설을 통해 대불산단 근로자와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은 물론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이정선 시교육감 초청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후원회 회장)는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초청해 1625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이정선 교육감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강연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이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인재들이 나와서 오늘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면서 "과거의 단순 학업성취도로 교육을 평가하는 것 보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코딩, AI교육을 활용해 인재를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공부하

고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외 아이들에게는 본인의 특기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365-스터디룸', '1교1대입 디렉터 양성',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학생 야외버스킹 및 광(光)탈패' 등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궁극적으로 광주지역민 모두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다음달 3일 '웃음전도사' 김영식 남부대 교수를 초청해 '영구적 위기의 시대 웃음건강법'을 주제로 1626회 강연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파산했는데 또 파산”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두차례 이상 신청 1021건 '매년 증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두 차례 이상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산절차를 경험한 채무자가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595건→2020년 770건→2021년 998건→2022년 10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은 740건으로 작년 전체 대비 약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가 49.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가 35.5%로 많았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9년 91건→2020년 127건→2021년 173건→2022년 21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200건이 신청됐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파산자 중 대다수는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회생 기회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르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젊은 창업자 85%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인하해야”

“자본이득세로 전환” 43.6%… ‘대물림 방지 위해 인상’ 4.3% 그쳐

국내 젊은 창업자들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는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0명이 응답했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43.6%)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5%에 달하는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또 상속세가 기업자 정신을 약화 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 방식이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9.3%로 집계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대’

학원 강사·헬스 트레이너 등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규모가 115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업 종류와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20대를 중심으로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등의 직군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대졸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는 작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115만6000

명이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8월 기준으로 2008년 24만6000명에서 이듬해 30만3000명으로 늘어난 이래 15년 연속 증가세다.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281.5% 뛰었다. 같은 기간 대졸 이상 전체 비정규직이 165만2000명에서 303만5000명으로 83.7%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에서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가운데 대졸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역대 최대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거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에서는 중졸 이하, 40~50대는 고졸, 20~30대는 대졸 이상이 많은 연령대별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0대 시간제 근로자는 올해 73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9000명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13만8000명)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50대와 40대는 2만4000명, 8000명 증가했고 30대와 10대는 1만명, 3000명씩 줄었다.

20대는 전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19.0%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본관 8층 '무브먼트 랩' 팝업스토어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취향 잇든 리빙 공간 완성하세요

광주신세계, 지역 첫 리빙브랜드 편집숍 '무브먼트 랩' 팝업스토어 운영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오는 19일까지 리빙브랜드 편집숍 브랜드인 '무브먼트 랩'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관 8층에 마련된 팝업스토어는 짙은 카멜레온과 오블리크 테이블, 무니토, 텍스처(TXTURE), NPD, 데이드리머 등 미집점 브랜드의 가구를 판매한다.

무브먼트 랩은 공간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리빙 브랜드의 제품을 선보이는 '큐페이션 스토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표적인 브랜드는 ' 짙은 카멜레온'으로 페블 소파·소프트, 링크 소파, 탄탄 소파, 다츠 사이드 테이블, 페탈로 체어 등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는 팝업스토어를 기념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무브먼트 랩 멤버십 가입 시 임점 브랜드 가입비를 20% 즉시 할인하며, 또 200만원 이상 구매금액 별로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단일 소파 컬렉션 300만원 이상 구매 시 쿠션을 증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4년도 중기 유공자 포상

중기부 내달 30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상 분야는 ▲ 모범중소기업인 ▲ 모범근로자 ▲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 지역 우수단체 등 4개로 심사를 거쳐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 전담팀이나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단체에서 추천도 받을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9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20	23	24	28	30	4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98,470,459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6,887,780	65
3	5개 숫자일치					1,513,299	2,873
4	4개 숫자일치					50,000	149,578
5	3개 숫자일치					5,000	2,481,449